

2009년 7급 지방직 수탁

<총평>

대체로 일반적이고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다. 문법, 어휘 10문제, 독해 5문제, 문학 2문제, 한자 3문제가 출제되었다. 낯선 고전 작품이나 어려운 한문 문장도 나오지 않았고 문법도 간단한 원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.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항배점이나 문제 유형 등을 볼 때 문제의 질은 높은 편이다. 단순 암기식 문제보다, 생각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.

<해설>

1. ① ‘가새표’가 맞다. ‘가위표’는 틀린말이다. ② 형용사이기 때문에 ‘알맞은’ ③ 겸손의미를 지닌 조사 ‘요’를 써서 ‘아니요’가 맞다. ④ 받침있는 명사 뒤에는 ‘-이에요/-이에요’가 붙어 친근한 말투가 된다.

정답 ①

2. 로마자는 소리대로 표기하나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다. [부각]으로 발음되니까 ‘Bugak’으로 표기해야 한다.

정답 ①

3.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는 경우에는 첫머리가 아니라도 두음법칙이 적용된다. ‘총유탄’, ‘실낙원’으로 적어야 한다. ‘파염치’는 이 경우가 이니다. ‘파렴치’가 맞는 표기다.

정답 ①

4. ① 수업 중에 ② ‘어치’도 접미사로 붙여 쓴다. ③ ‘데’는 ‘것’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쓴다.

정답 ④

5. ① 통틀어 ② 육개장 ④ 오뎅이가 바른 표기다.

정답 ③

6. 음절 말 자음 체계에서 종성에는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’만이 온다 따라서 ‘ㄷ’대신에 ‘ㅅ’을 쓰는 외래어 표기와 다르다.

정답 ③

7. 정보확인 문제다 답지를 먼저 보고 핵심어를 표시한 후에 지문을 읽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. ‘민중문학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진로 모색’이란 말은 지문 속에 없다.

정답 ③

8. 김만중의 <서포만필>에서 인용한 글이다. 자기말로 표현 할 때 문학의 참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. 따라서 ①번은 최치원이 쓴 한시이므로 본문 견해와 가장 거리가 멀다.

정답 ①

9. (가) 진정성으로 무장한 영화에 관객이 몰린다.  
 (나) <윈스>에서 영화적 진실을 느낀다.  
 (다) 한국영화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.  
 (라) <윈스>의 성공은 주목할 만하다.  
 (다)는 도입화제 -> (라)와 (나)는 연결됨 -> (가)는 결론

정답 ③

10. 낱말 뜻을 꼭 알아야 푸는 문제가 아니다. 뒷부분을 보면 물길 좋은 논임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극심하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

정답 ①

11. ㉠ 採算性(채산성)      ㉡ 縮小(축소)      ㉢ 貸出(대출)      ㉣ 引上(인상)  
 ㉤ 割賦(할부)      ㉥ 解明(해명)      ㉦ 惠澤(혜택)      ㉧ 收益性(수익성)  
 <보기>에서 ㉡, ㉤, ㉧은 틀린 표기다.

정답 ①

12. ③ 삼제 : 악습을 아주 없애버림

정답 ③

13. 불쌍한 이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위세를 떨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다.

정답 ④

14. ① 텔환 -> 철환(구개음화)    ③ 겨울히 -> 겨울에(ㅎ종성의 탈락)    ④ 므르조쳐 -> 물러나 쫓기어(원순모음화)  
 ‘움라우트’ 현상은 ‘ㅣ모음 역행동화’현상을 말한다. 이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.

정답 ②

15. ‘ㅇ, ㄹ, △’은 이체자로서 가획이 되지 않는다.

정답 ④

16. ‘ㄴ다/는다’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, 되지않으면 형용사이다. ④ ‘없다’는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동사다.

정답 ④

17. 인생의 근원적 고독과 무상감을 노래한 작품이다.  
 ① ‘울음 타는 강’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결합된 표현  
 ② ~나고나, ~것네 등은 고전적 어미  
 ③ 3연에서 인생의 삶과 물의 흐름을 대치시켰다.  
 ④ 낙관적 태도는 볼 수 없다.

정답 ④

18. ① 교훈적 -> 도리에 합당한 것    ③ 의미를 설정 -> 뜻을 가지고    ④ 문학의 개념을

간단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. ② 구비문학을 문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.

정답 ②

19. ㉠ 名聞(명문) : 세상의 평판이나 명성  
㉡ 名門(명문) : 문벌이 좋은 집안  
㉢ 名文(명문) : 매우 잘 지은 글  
㉣ 明文(명문) : 뚜렷하게 규정된 문구

정답 ②

20. 사장의 도태시키겠다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 우선은 순응하면서 눈치껏 생활 하자는 의미의 말을 생각해보면 된다.

정답 ④